동국대 캠퍼스 전법, 올해도 '탄탄대로'

동국대 서울캠 건학위원회
19개 불교동아리 계획 공유
'놀며 배우며 친숙하게' 기조
"불교동아리연합 구성" 제안
"1만 수계 시대 열겠다" 다짐


동국대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는 3월 20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동국건학장학 장학증서 수여식 및 불교동아리 지도교수 위촉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행사 직후 진행된 기념사진 촬영.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올해 사회과학대학 불교동아리 '템플애플'은 영캠프 수계법회에 적극 참여해 양적 확산을 적극 이루고, 질적 확산을 위해 '친구들과 즐겁게 불교와 친숙하게'를 모토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 합니다."

"경찰사법대학의 '캠폴스테이'는 대한불교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제12기 대원청년동아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원력을 이어 올해도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바이오시스템대학의 '야단법석'은 그간 호응이 좋았던 11개 대학 연합 법회와 더불어 9월에 있을 영캠프 수계법회에도 많은 학생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올해 '1만 명 수계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동국대(총장 윤재웅)가 올해 전개할 불교동아리 전법·포교의 밑그림이 확인됐다. 놀고 배우고 체험하며 불교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는 3월 20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동국건학장학 장학증서 수여식 및 불교동아리 지도교수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국대 서울캠퍼스의 19개 불교동아리 지도교수들이 한해 계획과 포부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황재현 사회대학장은 "'템플애플'은 단과대학 제1호 불교동아리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데 올해 신입 회원이 벌써 160명이 가입하는 성과를 보였다"며 "적극적인 포교전략으로 현재 회원수가 580명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임성묵 경영대학 부학장은 "경영대학의 '다붓다붓'이 지난해 진행한 '스터디 법회'가 호응이 좋았다. 이런 핵심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화해 경영학 학습과 더불어 불교적 성찰이 결합된 교육 커리큘럼을 정립하고 동국대만의 차별화된 동아리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과대학 불교동아리 '공양미 300석'은 '친해지기'를 올해 기조로 잡았다. 박현창 공과대학장이 소개한 계획에 따르면 '공양미 300석 친해지길 바라'에서는 신규 부원들의 동아리 적응을 돕기 위해 기존 부원들을 멘토로 매칭해 소모임 활동을 추진하며 '불교문화와 친해지길 바라'에서는 회원들이 매달 참석할 수 있는 행사를 열어 '불교 생활화'를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동아리인 '동불' 지도교수인 이경철 일본학과 교수는 동국대 불교동아리 간 연합활동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현재 단과대학을 비롯해 외국인·북한이탈학생 등 불교동아리가 19개에 이르며 연 수계 인원을 1만 명으로 목표를 잡을 정도로 성장했다"면서 "인원과 조직을 대표하는 '동국대 불교동아리 연합회'라는 학생 자치기구가 신설돼 학교 연등행렬, 영캠프 등 굵직한 행사들을 기획단계부터 참여하고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 사무국은 올해 전체 불교동아리 운영 계획을 소개했다. 올해 운영 목표로 불교동아리 체계회 및 지속기반 마련과 동국인 신행문화 정착으로 삼은 사무국은 △불교동아리 운영체계 및 거버넌스 정비 △생활 속 불교동아리 활동 활성화 및 기반 확장 △불교동아리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교동아리 운영 매뉴얼을 제작·교육해 안정적 학생 자치 기반을 마련하고 지도교수 활동점수 부여와 전법특임교수 제도 내실화가 추진된다. 연등행렬과 영캠프, 불교동아리 연합 템플스테이 등 대규모 불교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불교동아리 장학 후원도 적극 권선된다. 동아리 졸업생들의 동참도 추진된다.

윤재웅 총장은 "올해는 건학 120주년이자 건학위 설립 5주년을 맞는 해로 새로운 불교 중흥의 도약기를 동국대가 보인다는 생각으로 1만명 수계라는 목표를 세웠다"며 "서울캠퍼스와 WISE캠퍼스를 합한 수계 학생이 7000여 명에 달한다. 조금 더 노력하면 달성하지 못할 목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톱다운 방식이 아닌 단과대학, 기관 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횡적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1만명 수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교청년지도자육성장학생 신행 오리엔테이션 단체 기념사진.

동국대 정각원, '불청장학' 신행 중심 개편

3월 25일 장학생 OT 진행
인원 조정·장학금 규모 확대

동국대 정각원(원장 제정 스님)이 개교 120주년을 맞아 신행 실천 중심의 청년불자 지도자 양성을 위한 '불교청년지도자육성장학(이하 불청장학)'을 개편하고 새로운 장학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

동국대 정각원은 3월 25일 정각원 법당에서 '불청장학생 신행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장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각원장 제정 스님, 불청장학생 지도법사 현담 스님과 새로 선발된 불청장학생 40명이 함께 참석해 청년불자로서의 신행 실천과 장학 프로그램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불청장학은 2009년 시작한 동국대학교 정각원의 대표적인 '선신행 후장학' 프로그램으로, 신행 활동을 기반으로 한 건학이념 구현과 청년불자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장학 수혜 인원은 기존 60명에서 40명으로 조정되는 대신 장학금 규모는 확대돼 장학생들은 해외성지순례를 포함해 연간 최대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활동 기간 역시 기존 1학기에서 1년(최대 6학기 참여 가능)으로 확대됐으며, 선발 방식은 기존 연 2회에서 연 1회 선발로 변경됐다.

불청장학생은 1년 동안 △재학생 수요법회 △수계법회 △동국인 정기법회 △연등회 △봉축 연등권선 △영캠프 △해외 성지순례 △레디투명상 프로그램(다도명상·싱잉볼명상·향기테라피명상·SNPE 움직임 명상) △108배 수행 △봉사활동 등 다양한 신행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정 스님은 "불청장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학업과 신행에 정진하길 바란다"며 "졸업 이후에도 불청장학생 동기로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동국대와 불교 발전,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불교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담 스님은 "불청장학이 신행활동 실천 중심의 장학으로 거듭난 만큼, 불청장학생들이 다양한 신행활동을 통해 청년불자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동아시아 불교, 세대교체·도시화 속 신행 약화

퓨리서치 "10년간 불교 인구 1860만 감소"
'문화적 불교' 영향력 커 "포교 방식 전환"

세계 종교 지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동아시아 불교가 도시화와 세대교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신행 약화를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3월 20일 'UCA 뉴스'는 미국 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3월 11일 발표된 보고서 '동아시아 불교의 최근 쇠퇴'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종교 인구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성장세를 유지한 것과 대조적으로 불교는 신자 수가 약 1860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 불교 인구의 90% 이상이 집중된 아시아, 특히 한국·일본·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세대 간 신행 전승 약화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불교 가정에서 성장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불교를 믿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불교 가정 출신 성인의 약 40%가 무종교인으로 응답했고, 한국도 4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무종교화는 의도적인 개종이나 급격한 단절보다는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청년 세대가 치열한 경쟁과 바쁜 일상에 내몰리면서 기존 세대가 지켜온 전통적인 신앙적 가치와 서서히 멀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조사에 참여한 일부 동아시아 청년들은 "불교는 평온함을 주지만, 당장의 생계와 사회적 성공을 추구해야 하는 도시의 삶과는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응답했다.

인구 구조 변화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동아시아 전반의 저출산·고령화는 불교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전통적인 사찰 운영 방식이 가족 단위의 신도 조직에 기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의 감소와 비혼화 현상은 사찰의 지지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위기 속에서도 희망적인 지표는 존재한다. 보고서는 공식적인 신행 활동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문화적 불교'로서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많은 청년층이 스스로를 '불교 신자'라고 규정하지는 않지만, 사찰의 건축미나 명상, 전통문화와 같은 콘텐츠를 통해 심리적 위안을 얻으며 불교적 가르침에 관심과 호감을 보인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를 계기로 동아시아 불교계의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전통적인 포교 방식에서 나아가 현대인의 삶과 정서에 맞는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찰이 현대인의 고립감과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전쟁 · 살생 그만" 법고 기도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가 3월 26일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건너편에서 전쟁과 살생을 멈추고 파병 반대를 촉구하는 평화를 위한 법고 기도를 봉행했다. 부위원장 고금 스님의 법고의식으로 시작된 이날 기도에서 사노위 위원 스님들은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에 전쟁 멈춤과 평화를 위한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사노위는 또 전쟁으로 희생된 이들이 전쟁 없는 세상, 고통 없는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하며 전쟁으로 가족을 잃거나 다친 모든 이들의 아픔이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발원했다. 임은호 기자

정우 대종사, 모친 조의금 자비나눔 회향

3월 25일, 3000만원 전달
진우 스님 "자비행 큰 감동"



구룡사 회주 정우 대종사의 모친 고(故) 대자화 보살의 조의금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 기금으로 회향됐다.

정우 대종사의 상좌인 장안사 주지 성화 스님(조계종 종책특보단장)과 구룡사 주지 성륜 스님, 여래사 주지 각심 스님은 3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지난 3월 18일 별세한 대자화 보살의 조의금을 모은 자비나눔 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성화 스님은 "은사 스님께서는 모친상 당시 총무원장 스님께서 직접 찾아 위로해 주고, 많은 스님들이 마음을 보태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하게 여기셨다"며 "스님의 모친께서는 생전 어려운 이웃을 향한 마음이 각별해 늘 베푸는 삶을 사셨다. 그 뜻에 따라 조의금을 자비나눔 기금으로 회향하는 것이 곧 유지를 받드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정우 스님 모친의 법명 그대로 '대자화'를 몸소 실천하신 삶이었다"며 "열반 이후에도 자비행이 이어지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친은 정우 스님과 같이 종단의 큰스님을 길러 내셨다는 점에서 마야부인과 닮았다"며 "102세라는 긴 세월을 사신 것도 오랜 보살행의 원력 덕분이다"라고 추모했다. 김내영 기자

청년 60명, 연화사서 수계…"진정한 불자"

3월 21일 경내 대웅보전서
조계종 신도증도 직접 신청

서울 연화사(주지 묘장 스님)가 3월 21일 대웅보전에서 '청년·대학생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경희대·한국외국어대 불교동아리 회원들을 비롯해 불자 유튜버, 청년 불화작가, 연화사 신도 자녀 등 60여 명이 동참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수계법회 참여에 이어 조계종 신도증 발급까지 자발적으로 신청해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체로서의 의지를 드러냈다.

묘장 스님은 "청년들이 문화 콘텐츠를 통해 불교를 접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한 신심이 자리하고 있다"며 "계율을 삶 속에서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수계의식을 통해 불자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배워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내영 기자


연화사는 3월 21일 청년–대학생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템플스테이, '예술인 복지' 힘쓴다

문화사업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MOU



작품활동으로 지친 예술인들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용옥)은 3월 26일 템플스테이정보센터 3층 화엄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은 불규칙한 소득과 창작 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번아웃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템플스테이를 통한 실질적인 휴식과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콘텐츠인 템플스테이의 '마음 챙김' 가치를 예술인 복지 영역으로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예술인의 심신 치유 및 정서 회복을 위한 템플스테이 체험 지원 △'템플스테이' 공동 홍보 △기타 상호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이번 업무협약은 예술인들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자연과 전통 수행문화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새로운 창작의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뜻깊은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사찰의 고요한 환경과 한국불교의 수행 문화가 예술인들에게 깊은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 나아가 이 같은 경험이 예술활동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되길 기원한다"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